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9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9월 1일~9월 30일

대내경제 80

<북한 공식경제>

홍수 피해로 수해 복구에 치중하는 북한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

<농업 및 식량>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상반된 보도

대외경제 82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력

<북중관계>

대북 석탄 수입, 대중국 수출 상승세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북한 공식경제〉

노컷뉴스(9.10, 9.24), 매일경제(9.14)

홍수 피해로 수해 복구에 치중하는 북한

북한이 함경북도 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건설을 중지하면서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여명거리 건설부대 등 200일 전투에 투입됐던 주력부대를 급파하면서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나섬. 특히 북한 최대의 무산광산도 수해피해를 입어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은 수해복구 노력으로 최근 일부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자투자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은 지난 9월 9일 웹사이트 ‘금강산’에 투자안내서를 게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합작 투자방식으로 진행될 금강산종합봉사사 건설은 455만달러 정도를 투자유치하며, 이행 기간은 건설 12개월에 운영 10년이라고 나와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따라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투자 유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임.

〈농업 및 식량〉

헤럴드경제(9.13), RFA(9.27), 노컷뉴스(9.29)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상반된 보도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부에서 충당해야할 식량 규모가 69만 4천톤에 이른다고 밝힘. 식량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부지원과 수입으로 확보한 식량은 8월 기준으로 2만 9천톤에 그쳐, 66만 5천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FAO는 설명함. 특히 이러한 상황은 2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FAO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 국가로 재지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부문 소식통은 북한의 알곡수확량이 570만톤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유아

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알곡생산량이 지난해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외부의 큰 지원 없이도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었다고 함. 또한 올해도 가뭄이나 장마피해가 적어서, 내년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함.

한편,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북한이 요청하지 않아 무산돼 3년째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작황 조사를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크리스티나 코슬렛 식량농업기구 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28일 『미국의소리』에 밝힘.

대외경제

〈대북제재〉

YTN(9.6), MBN(9.9), RFA(9.9), 중앙일보(9.20), VOA(9.28), 동아일보(9.29), SBS(9.30), 환구시보(9.30)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확인된 후 미국정부는 고강도 대북압박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다자적 제재를 확대 적용하여 추진하되 북한 무역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과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 큼.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뉴질랜드대표부 제라드 반 보히먼 대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새 안보리 결의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힘.

이외에도 美 재무부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음. 북한에 핵 물자를 수출한 중국 랴오닝흥상그룹에 대한 제재조치는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로 해석이 가능함.

또한, 미국에서는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안이 몇 세면 미 하원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북한을 금융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력

북한의 제재대상과 연루되어 있음에도 교묘히 제재를 피한 북한 기업·개인·선박은 5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의 이행력을 다시한번 촉구함. 이에대해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뤼차오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제재를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와같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환구시보』에서 전함.

추가적으로 파키스탄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차원에서 북한 고려항공의 여객기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한편, 탄자니아에서는 제재대상인 북한의 선박에게 선적(배에 부여하는 국적)을 부여했다고 알려져 제재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RFA』는 전함.

〈북중관계〉

중국석탄자원망(9.28), VOA(9.30)

대북 석탄 수입, 대중국 수출 상승세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액이 4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음. 『중국석탄자원망』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량은 246만 5천톤으로 지난 4월 수입량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임. 한국무역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중 석탄 수출액은 1억 1천만 달러고 전달보다 25% 증가했다고 『VOA』는 전함. 북한산 석탄은 국제시가보다 저렴해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경쟁력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헤럴드경제(9.1), Radio Free Asia(9.1, 9.9 9.20 9.21 9.27), YTN(9.2), 미디어팬(9.3), VOA(9.13), KBS(9.23), SBS(9.30)

아래 표는 9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아일랜드	2015년 말	WFP 대북 영양 지원사업 지원금	40만 유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2016년 8월	영양 강화식품	영양 강화식품 2천 114톤	
유엔 세계식량계획	2016년 9월	홍수 피해 구호품	영양비스켓 77톤, 콩 한달 분.	
스위스 (세계식량계획)	2016년	분유	분유 1567톤 (85억원 상당)	스위스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분유를 전달하고 있음.
유엔연구기금	2017년~ 2021년	대북 사업 지원금	1150만달러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예산
유엔	2016년 9월~12월	홍수 피해 구호품	지사제 11000정 식수 1만 가구분, 천막 및 식량 4천명 분	
유엔	2016년 9월~12월	홍수 피해 긴급대응지원금	410만달러	세계식량계획에 180만달러, 유니세프에 170만달러, 식량농업기구 60만달러 배정
국제적십자사	2016년 9월	홍수 피해 구호품	천막, 방수포, 수질정화제, 식수통, 주방용품 2만명분	수색과 구조, 응급 치료 활동 인력 1천명 동원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9.01] 유엔개발계획, 대북 지원 올해 말 일단 중단 **(헤럴드경제)**
- [2016.9.01] 아일랜드, 지난해 44만 달러 대북지원 **(RFA)**
- [2016.9.02] "WFP, 8월 北 식량 지원 전달보다 5배 증가" **(YTN)**
- [2016.9.03] 스위스, 현금 대신 북한 영양실조 어린이 '분유' 지원 **(미디어펜)**
- [2016.9.06] 파키스탄도 北 제재 동참..고려항공 입항 금지**(YTN)**
- [2016.9.09] UNFPA 대북지원 연장, UNDP는 잠정 중단 **(RFA)**
- [2016.9.09] 美, 북한 핵실험 맞서 석유수출 금지 등 고강도 압박 나서 **(MBN)**
- [2016.9.09] 탄자니아, 제재대상 北 선박에 선적 부여 **(RFA)**
- [2016.9.09] 안보리, 더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 **(RFA)**
- [2016.9.10] 북, 평양 여명거리 건설 중단, 함경북도 수해 복구 총동원령 **(노컷뉴스)**
- [2016.9.13] 유엔 "北 수재민 14만명 긴급 지원 필요...사망 113, 실종 395" **(VOA)**
- [2016.9.13] FAO, "북한, 올해 식량 66만톤 부족"..식량부족국 재지정 **(헤럴드경제)**
- [2016.9.14] 금강산종합봉사소 건립 추진...50억원 투자유치 공고 **(매일경제)**
- [2016.9.20] 北 기업 등 562곳 제재 교묘히 회피... 중국 '랴오닝 홍샹'과 6,000억 거래 **(중앙일보)**
- [2016.9.21] WFP, 수해민에 한달분 식량지원 **(RFA)**
- [2016.9.23] 북한주재 유엔기구, 구호기금에 北수해복구 자금 요청 **(KBS)**
- [2016.9.24] 북 최대 무산광산도 수해로 큰 피해.."일부 생산 공정 재가동" **(노컷뉴스)**
- [2016.9.27] 美, 북 홍수피해 지원계획 없어 **(RFA)**
- [2016.9.27] 북, 내년 식량 자급자족 가능할 듯 **(RFA)**
- [2016.9.28.] US indicates more Chines firms could be probed for breaching DPRK Sanctions **(VOA)**
- [2016.9.28] 중국, 대북 석탄 수입량 사상 최대 기록 **(중국석탄자원망)**
- [2016.9.29] 美, 국제금융망서 北 퇴출시키겠다 **(동아일보)**
- [2016.9.29] 유엔, 북한내 작황조사 연 3년째 무산 **(노컷뉴스)**
- [2016.9.30] 유엔, 北 수해복구에 410만 달러 지원 **(노컷뉴스)**
- [2016.9.30] 美,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SWIFT까지 겨냥 초강경 법안 발의 **(SBS)**
- [2016.9.30] China probes firms suspected of NK sanction violations **(환구시보)**
- [2016.9.30] 北 대중국 주력 수출품 수출액 6달째 상승세 **(VOA)**